

보도시점 2026. 9. 29.(화) 14:00 (2026. 9. 30.(수) 조간)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노동존중 문화, 전국으로 확산 지속

-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올해 5번째로 안산시에서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9일(화), 경기 안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 안산시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흥 소재 기업 및 지역사회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에게 각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눴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야, 너’ 등의 호칭 대신 이름(00님, 00씨)으로 부르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울산을 시작으로,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 8월 충남 아산에 이어 안산에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의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한 포크 나눔과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오는 11월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과 방한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안산시, 안산노동지청, 안산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는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안산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고, 일터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행사에 참석한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전을 살피는 작은 실천이 **전국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노동존중과 안전의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아 (044-202-7152) 박성진 (044-202-7150)



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 (주최) 고용노동부, 4개 노동권익재단*, 안산시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일시) '26. 9. 29.(화), 14:00~15:00

□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참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기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시장, 박해철 의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지역 사업주, 이주노동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이주노동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 전달 및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1 ('1)	• 개 회	사회자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14:01~14:06 ('5)	• 참석자 소개	
14:06~14:10 ('4)	• 경과보고	
14:10~14:13 ('3)	• 개회사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14:13~14:25 ('12)	• 인사말씀	안산시장, 박해철 의원, 고용노동부
14:25~14:30 ('5)	• 이주노동자 발언	
14:30~14:40 ('10)	•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안산 선언」 서명 • 대형 안전모 서명	(정부) 안산시장·안산지청장 (사용자) 안산상공회의소 (노동자) 민주노총·한국노총
14:40~14:55 ('15)	• 안전모 전달	
14:55~14:59 ('4)	• 단체 사진	
14:59~15:00 ('1)	• 폐 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주신

박해철 의원님과 이민근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님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이주노동자 여러분과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서 노동존중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안산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우리 일터 곳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동료로 기억하고,
서로의 안전을 함께 살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마음과 약속이
각자의 일터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변화가 시작되고,
더 많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주노동자 여러분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